

지역 검경 연루 ‘사건 브로커’, 징역 3년2개월 확정

대법, 피고인 상고 무변론 기각...공범 전씨는 징역 1년8개월
가상자산 투자사기범 1심은 해 넘겨...재판부 변동 가능성도

가상자산 투자사기범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십수억대 금품을 받아 수사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 브로커’가 징역 3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다.

이로써 성씨에게 항소심 판결 징역 3년2개월과 17억1천300만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성씨는 공범 전씨와 함께 지난 2020~2021년 가상자산 투자사기범 탁모씨로부터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고 수사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됐던 전씨는 항소심에서 징

역 1년8개월에 1억4천15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는데,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앞서 확정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광주·전남 수사 기관에 다방면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 브로커’ 관련 재판 하나는 마무리됐다.

전·현직 검·경 관계자 등 총 18명을 재판에 넘겨지게 한 ‘사건 브로커’의 존재와 범행은 수사 무마를 의뢰한 탁씨에 의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탁씨는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투자 사기 관련 수사를 받게 됐는데, 누범으로 인한 출국 금

지와 지명 수배 등의 조치가 우려되자 이를 무마할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자신의 동생을 통해 전씨를 먼저 소개받았다.

이후 전씨는 탁씨의 부탁을 해결해 보려 했으나, 탁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수사 기관에 자신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법정에서 탁씨가 밝혔던 진술에 의하면 성씨가 행사한 영향력은 실제로 통했고, 그 덕에 둘 사이엔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

이에 탁씨는 또 다른 투자 사기 범행으로 수사받게 되자 성씨에게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때마다 성씨와 전씨는 이른바 ‘경비’를 요구했고, 탁씨는 이에 응했다.

그러나 거액을 지출했음에도 앞선 때와 달리 수사 등이 무마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씨가 되려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자 탁씨가 수사 기관에 이들의 비위를 제보했다는 정황이 관련 재판에 드러났다.

탁씨 등을 기소한 검찰은 후속 수사에 나서 성씨를 통해 이뤄진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 비위 연루자를 색출, 재

판에 넘겼다. 이 재판들의 확정 판결은 아직이다.

‘사건 브로커’의 발단이 된 탁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첫 재판 후 다수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고, 올해 마지막 재판은 지난 28일 진행됐다.

탁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해 1월 재개된다.

다만, 탁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광주지법 형사11부가 다음 해 2월 정기 인사에서 변동되는 곳이라 1심 선고를 새로운 재판부가 할 가능성도 있다. /안재영 기자



5·18묘지 방문한 이스라엘 대사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왼쪽 세번째)가 28일 오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 참배한 뒤 묘역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국립 5·18민주묘지 제공>

“5·18 정신적 피해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양부남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28일 “5·18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18 관련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5·18 관련



양 의원은 “매년 과거사 보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해 피해자들이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자로 새롭게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교통공사 퇴직자임금피크소송 패소

광주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자신들이 적용받은 임금피크제가 차별적이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28일 광주교통공사 퇴직자 9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에게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했고, 출근일 축소 등 불이익 보전 조치도 시행했다”며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채용에 사용해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안재영 기자

광주 저축은행 대출 비리 ‘240억대’로 커졌다

檢, 8명 기소·1명 지명수배...연루 의혹 수사관 수사는 계속

광주 한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이 저지른 불법 대출액이 총 240억대로 특정됐다.

대출 브로커와 ‘법조 브로커’ 등 총 8명을 기소한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1명의 검거와 소속 수사관을 상대로 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41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대가로 약 1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전 은행장 A(60대)씨와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7억원을 수수한 현직 변호사 B(50대)씨, 대출·법조 브로커 등 총 8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같은 은행 소속의 공범, 대출 브로커, 불법 대출 수혜자 등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부정 대출 금액은 이날 검찰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증재·알선수재·횡령) 혐의를 받는 C(50대)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24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불법 대출 수사에 착수하자 A씨와 대출 브로커는 ‘법조 브로커’를 통해 ‘검찰 일을 잘 보는 변호사’ B씨를 소개받았다.

B씨의 ‘수사 무마’ 행각에는 법조 브로커 한 명도 관여해 별도 기소됐다.

또 다른 법조 브로커는 B씨 등의 범행과 별도로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알

선 행각을 벌이겠다는 명목으로 대출 브로커로부터 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 감보디아로 도주한 제3의 법조 브로커를 지명수배하는 등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브로커는 수사 단계에서 신원이 특정되기 전 해외로 도주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B씨가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실제 검찰 관계자 로비에 쓰인 것으로 보고 소속 수사관 등을 상대로 후속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광주지검은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대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첫 재판을 받은 변호사 B씨는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 /안재영 기자

3억대 인건비 ‘꿀꺽’ 전 고흥군 공무원 집유

2년여간 중도 포기 공공근로자 일한 것처럼 꾸며

수원원대 공공근로 인건비를 빼돌린 전 고흥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귀속돼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지자체 예산 운영, 공무원 청렴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편취 금액을 모두 고흥군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

A씨는 고흥군 소속으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14차례에 걸쳐 공공근로 인건비 3억2천90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 혐의로 기소됐다.

중도 포기한 공공근로 대상자들이 일한 것처럼 인건비를 신청하거나 일한 날짜를 부풀린 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 공공근로 대상자가 아닌 자신의 계좌를 입금 계좌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정기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